

광주 주변 7개 市郡 산업 전문화

장성-전자부품 나주-식품가공 화순-생물의약 곡성-부품소재 함평-명품한우 담양-전통공예 영광-수산물수출

■ 광주근교권 발전계획 최종용역 결과

광역 정보체계 구축...시너지 효과 높여야

■ 광주 근교권 특성화 사업

지역	주력 특성화 사업
장성군	전자부품산업 집적단지,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친환경 농산물 산지물류센터
화순군	수송기계부품 산업단지, 생물·의약 클러스터,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담양군	전통공예품 현대화사업, 과실·약초 재배단지, 전원주택단지 시범조성, 담양호 수상레저시설 개발사업
곡성군	겸면 부품·소재 지원센터, 천연농약 신소재산업센터
나주시	나주배 식품가공 기반 조성사업, 천연염색산업, 영산포 근대거리 특성화 사업
함평군	세계 나비·곤충자원 산업화센터,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사업
영광군	수산물 수출산업화 단지, 해양생태휴양단지

장성엔 전자부품산업, 화순엔 생물·의약산업, 나주엔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등 광주광역시 근교 7개 시·군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된다.

25일 산업연구원은 전남도가 의뢰한 '광주 근교권 발전계획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광주 근교 7개 시·군은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정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각 시·군의 특성과 전략을 통해 광주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담양엔 전통공예품 현대화사업, 함평엔 한우명품 브랜드 사업, 영광엔 수산물 수출산업, 곡성엔 부품·소재산업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광주가 중추 업무 및 문화·유통·소비의 거점도시이자 국제 비즈니스·과학기술 도시 등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 근교권은 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표> 광주가 중추 업무 및 문화·유통·소비의 거점도시이자 국제 비즈니스·과학기술 도시 등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 근교권은 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자부품산업 집적단지(160만㎡, 사업비 900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및 친환경 농산물 산지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화순군의 발전 방안으로는 수송기계부품 산업단지(33만㎡, 사업비 250억원) 조성사업과 생물·의약품클러스터 구축,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제시됐다. 또 담양군에 적합한 사업으로는 대나무를 활용한 전통공예품 현대화사업을 비롯

해 과실·약초 재배단지 및 전원주택단지 시범조성, 담양호 수상레저시설 개발사업 등을 꼽았다.

곡성군은 겸면의 농공단지에서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소재 지원센터' 건립과 천연농약 신소재산업화센터 건립 등을, 나주시는 나주배를 활용한 식품가공 기반 조성사업과 천연염색산업 기반 조성, 영산포 근대거리 특성화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함평군은 세계 나비·곤충자원 산업화센터 건립과 함평 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사업 등을, 영광군은 수산물(굴비, 뱀장어, 캐비어) 수출산업화단지 조성 및 해양 생태 휴양단지 조성 등에 주력해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광주 근교권 7개 시·군이 공동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 정보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대도시권 전원주택·정경농업·생태관광 등의 문화레저시설에 대한 공동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 설

2년 연속 적자 기록한 기아차 경영실적

기아차가 2006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기아차는 지난해 매출 15조9천485억원, 영업손실 554억원, 당기 순이익 136억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손실이 1천165억원 발생한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낸 것이다. 지난해 총 매출액도 전년도에 비해 8.6%나 감소했다.

우리가 기아차 영업실적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아차광주공장 때문이다. 광주공장은 광주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기아차가 어려우면 지역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아차가 현재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타개해 올해에는 영업실적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기아차는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 같은 소문이 나올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지난해 4·4분기 실적은 흑자로 전환하는 등 영업이익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영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 노력이 가시화해야 한다.

기아차는 지난해 실적 부진 이유로 총 124시간의 노조파업과 환율 하락, 수출단가 인하 등을 들었다. 올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다. 수입차의 거센 도전에다 국내경제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소비감소,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차가 실적을 개선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탄력적인 노사관계 복원이 시급하다. 연례행사가 된 파업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노사는 비상한 각오는 올해만큼은 파업 없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교육 개혁 의욕만 앞세워선 안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 몰입교육' 등 영어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라 2010년부터 모든 고교는 영어수업을 영어로 해야 한다. 농어촌 학교에선 시범적으로 수학과 과학 등 일반과목도 영어로 가르치게 된다. 교육현장에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영어교육을 말하기와 듣기 위주의 실용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초·중·고와 대학 등에서 영어를 10년 이상 공부하고도 외국인과의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사교육 광풍을 없애고 '기러기 아빠'까지 퇴출할 수 있다고 하니 두 손 들어 환영할만하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우선 영어 교사의 실력이다. 조사 결과,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고교 영어교사는 전체의 50.5%에 불과하다고 한다. 영어교사 절반이 영어수업

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이다. 학생들의 실력까지 감안하면 2년 후 영어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영어 실력을 높이려면 학생은 물론 교사들부터 사설학원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영어회화나 글쓰기 실력이 단기간에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경우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에 혼란을 빚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책 목표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수는 의욕만 앞세워 실력을 높이는 것조차 중요하지만 영어가 결코 만능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18 보상지원위' 폐지되나

정부조직 개편안 따라 폐지 될 판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업무를 총괄해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새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라 폐지될 운명에 놓였다.

지난 21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업무와 기능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상 위원회는 5·18 관련자, 유족 지원을 위한 상급 모금 및 보상재원 마련 등 업무총괄해왔으며, 광주시에 있는 '5·18민

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아왔다.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장관 6명과 민간전문위원 등 모두 15명이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안이 개정되더라도 광주시에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과거사위와 연계해 통해 업무를 지속하게 되지만, 광주항쟁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상위원회의 업무가 과거사 위원회가 소관하는 하나의 사무가 됨으로써 광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특검, 삼성화재 본사 등 3곳 압수수색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는 25일 새벽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와 전산센터 2곳 등 총 3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본사 사옥 일부와 서울 수유리 삼성화재 사옥 전산센터, 그룹 전체의 전산자료가 보관된 과천 삼성SDS e데이터센터 등 3곳이다.

특검팀은 삼성화재 본사의 경우 사장과 사장의 비서실 등 22층을 포함한 몇 개 층을 수

색 중이며, 전산센터에서는 고객에게 지급 또는 미지급된 보험금 내역, 센터가 관리 및 특약 관련기록 등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KBS를 통해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일부를 빼돌려 연간 1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회사 22층에 비밀금고와 존재한다'는 제보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2-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회2부 2200-620
사회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아차 작년 554억 적자 올해 1조 7,490억 투자

기아차가 지난해 4·4분기에 1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으나 지난해 총 5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2년 연속으로 적자를 냈다.

기아차는 지난해 4·4분기에 매출 4조6천934억원에 영업이익 977억원, 당기순이익 379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7.8%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천527억원, 381억원 수치가 개선됐다.

기아차는 지난해 2·4분기에 영업이익 370억원으로, 1년 만에 영업손실의 늪에서 빠져나온 뒤 3·4분기에 영업이익 1천16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으나 1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 15조9천485억원, 영업손실 554억원을 기록하면서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냈다. 한편 기아차는 이날 "올해 1조7천4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인수 MOU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금호아시아나는 25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대한통운빌딩에서 김주안 아시아나항공 사장, 서중욱 대우건설 사장,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체결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오는 2월 15일까지 3주간의 기업 실사를 단행한 뒤 3월5일에 본격적인 인수 절차를 시작한다.

금호아시아나는 대한통운 인수가 완료되면 건설·레저 부문, 화학·타이어 등 제조부문, 그리고 항공·운송·물류부문 등 총 3개 사업분야에서 균형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문화콘텐츠 제작 발표회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 광주문화콘텐츠 제작 발표회 및 투자상담회가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진흥원은 이날 CGI(Computer Generated Image·컴퓨터 가공형성 이미지)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과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 문화콘텐츠 특성화 브랜드상품 발굴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11개 문화콘텐츠를 선보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년 경제성장률 4.9% 달성

4분기 제조업 성장 힘 입어...韓銀 예상치 웃돌아

지난해 우리나라는 연 4.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애초

예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교역조건이 악화하면서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에 크게 밀려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가운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에 비해 1.5%, 전년 동기에 비해 5.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은은 작년 12월 '2008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작년 4분기의 경우 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5.1%를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실질 GDP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것은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성장률은 4.9%로 나타났다. 한은 전망치 4.8%보다는 0.1%포인트 높지만 2006년 5%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실질 GDP성장률은 2002년 7.0%에서 2003년 3.1%로 크게 떨어진 뒤 2006년을 제외하고 줄곧 5%를 밑돌았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불행 한건지... 행복 한건지...

여수, 국내 최대 석유화학기지 '우뚛'

금호石化·휴켄스 산단 입주키로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석유화학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금호석유화학과 휴켄스사의 입주로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기지로 우뚛 서게 됐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기 옥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박승영 휴켄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13만5천59㎡ 부지에 총 3천789억원을 투입해 2009년까지 BR(합성고무) 공장과 6-PPD(산화방지제) 공장 등을 건립한다.

이곳에서는 타이어와 신발, 골프공 등에 사용되는 원료인 BR 및 타이어와 고무제품류의 노화방지

제로 사용되는 6-PPD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휴켄스는 여수산단 내 8천㎡의 부지에 총 7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자동차·건축·신발용 폴리우레탄의 주원료에 제공하는 원료인 MNB(폴리우레탄 중간원료) 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두 기업의 유치로 여수산단은 2009년 기준 150~200명의 직·간접 고용효과와 함께 합성고무 및 정밀화학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5천여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조기에 공장 건립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여수산단의 확장 시기에 맞춰 새로운 외국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